

동신대, 산학연관 협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 모색

지역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 심포지엄 개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성과 지속적 창출 기대

동신대학교는 최근 대정도서관 동강홀에서 '2025 바이오분야 원천기술의 기술혁신을 위한 지역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바이오 기술이 국가 미래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10대 핵심분야 중심의 전략적 R&D 기조를 공유하고, 지역 산학연관이 협력해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신대는 지난 2021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선정 이후 지역 기반 바이오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으며, 2022년에는 바이오의료기술 개발사업과 MRC 선도연구센터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중추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바이오 심포지엄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됐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을 앞둔 현 시점에서 동신대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것이다"며 "지역 연구자·기업·지자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마이크로바이옴·웨어이징 특화 전략과 산학연 협력형 R&D 체계 구축, 산업화로 연계되는 전주기 사업과 생태계 조성이 바이오산업 발전의 핵심이다"면서 "지역의 강점을 살린 바이오 혁신을 위해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조현민 기자 pose007@gwangnam.co.kr



동신대학교는 최근 대정도서관 동강홀에서 '2025 바이오분야 원천기술의 기술혁신을 위한 지역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구 착한가게·착한쿠폰 골목상권 활성화 역할 '톡톡'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행안부 '장관상' 수상

'서구형 정책모델' 안착

광주 서구가 추진 중인 '우리동네 착한가게·착한쿠폰' 사업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지난 3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읍면동 복지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복지 시작지대 발굴·지원 분야 전국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전국 지자체의 복지 및 안전 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서구는 최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읍면동 복지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동네 착한가게·착한쿠폰' 사업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본선에서는 사전 서류심사를 통과한 22개 지자체가 참여해 현장 발표, 심사 등을 통해 최종 수상 지자체가 결정됐다.

서구는 올해 나눔과 소비를 연결한 대표 복지정책인 '착한가게·착한쿠폰' 사업

을 통해 총 3억5000억원 규모의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 사회에 기부문화 확산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이뤘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7월 지역 전체 착한가게의

약 13%가 위치한 양동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광주1호 착한시장·착한거리'로 지정하고 총 1억200만원 규모의 착한쿠폰을 발행했다.

이어 모바일 쿠폰 사용이 어려운 돌봄대상자 1020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종이 쿠폰을 지급하고 양동시장 내 착한가게 지정 점포에서 사용하도록 해 복지 시작지대 해소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썼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착한가게·착한쿠폰 사업은 복지 시작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을 함께 실현한 서구형 정책모델이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나눔문화 확산과 복지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j1404@gwangnam.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최근 '2025 ACC 글로벌 해설사 해단식'을 갖고 올해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ACC 글로벌 해설사들 올해 활동 마무리

해단식 개최...7개 언어권 10명 3개월 간 30차례 참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은 최근 '2025 ACC 글로벌 해설사 해단식'을 갖고 올해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ACC가 올해 처음 운영한 'ACC 글로벌 해설사'는 아시아 7개국 언어로 ACC의 건축·역사·공간을 소개하는 외국인 대상 특별 투어 프로그램이다. ACC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및 유학생, 다문화·구성원이 자국어로 ACC 공간과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으며,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30차례 활동했다. 이날 열린 해단식에서는 참여한 해설사들의 활동 소감 발표와 함께 시상식이 진행됐다.

'ACC 글로벌 해설사'는 지난 6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됐다.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총 7개 언어권 10명으로 구성됐

다. 이들은 언어별 해설 시나리오 개발, 미디어 활용 등 총 18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후 ACC를 방문한 해외 방문객들에게 다국어 투어 해설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ACC의 건축적 특징, 지하 공간과 역사적 맥락, ACC 콘텐츠 등을 자국어로 소개해 외국인 방문객과 다문화 커뮤니티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글로벌 해설사들은 투어 해설을 넘어 각자가 가진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ACC를 재해석해 소개함으로써 방문객에게 보다 폭넓은 이해와 의미를 더했다.

김상욱 전당장은 "'ACC 글로벌 해설사'가 들려준 다양한 언어의 해설은 외국인 방문객이 ACC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돕고, ACC가 추구하는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체감하도록 만드는 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김영기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복지는 제 삶의 소명...더불어사는 세상 앞장"

37년 노인 복지 증진 기여...‘아너’ 108호 가입

"복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제 삶의 '소명'입니다."

김영기(70) 광주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지난 37년간 지역 사회의 그늘진 곳을 비추며 헌신해 온 패밀리카운슬링센터 시설장이자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그가 평생 실천해 온 '사랑과 봉사'의 결실로, 시설 운영에 있어 입소

어르신은 물론 보호자와의 진심 어린 소통, 직원들과의 따뜻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가족 같은 요양원'을 만드는 데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영기 회장의 복지 인생은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비인가 시설 봉사와 물품 후원으로 시작된 나눔은 1997년부터 독거노인 연탄 배달과 말반찬 지원, 명절 위문 등 '발로 뛰는 현장 복지'로 이어졌다. 2001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한울복지회를 설립했



고, 2005년 사회복지법인 한울복지재단으로 발전시켜 "퇴직에서 요양까지 어르신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인 생애 복지의 기틀을 닦았다.

특히 김 회장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자립'과 '시스템'을 고민한 혁신가였다. 그는 2002년 노인들의 연륜을 활용한 '전통 반찬(김치) 사업'을 기획, 시장 배달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참여자에게 배분하는 획기적인 노인 일자리 모델을 선보였다.

김영기 회장은 "복지는 제 삶의 소명과도 같고 시민 모두가 참여하며 관심을 가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면서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가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상부상조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광주공고, 내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성료

118% 지원 129명 최종 선발...인재 양성 새로운 도약

광주형마이스터고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광주공업고등학교(교장 박태호)는 최근 2026학년도 신입생 129명을 대상으로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광주형마이스터고의 취입·진학 비전과 방향 안내, 입학 전 준비사항 안내, 학교 교육과정 소개, 학과 심화·실습실 견학 등이 진행됐으며, 신입생들로부터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 속에 118% 지원율을 기록하며 경쟁률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신입생들의 내신 성적과 지원율이 전년

도 대비 향상되는 등 광주형마이스터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도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측에 따르면 "광주공고가 지난해 7월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광주형마이스터고로 지정된 이후 관내 중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고입 진학 설명회, 토코 콘서트, 학과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진학 관련 행사가 운영되며,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광주형마이스터고의 비전과 교육활동이 폭넓게 공유됐다.

광주형마이스터고 광주공고는 전 학



광주형마이스터고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는 광주공업고등학교는 최근 2026학년도 신입생 129명을 대상으로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과 과정평가형 산업기사 취득 교육과정 편성, 진로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 신입생 전원 1인 100만원 장학금 지원, NCS 기반 실무 중심 교육, 글로벌 해외 체험활동, 상설 동아리 운영 등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공업고등학교는 스마트기계과

(18명), 자동화기계과(18명), 발전설비과(18명), 전기과(20명), AI반도체과(18명), 스마트건설과(18명), 건축인테리어과(19명) 등 총 7개 학과에서 129명의 신입생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2026학년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나주시, '인플루엔자 주의' 마스크 착용 캠페인

'백신접종·마스크 착용·손 씻기 필수' 슬로건

나주시보건소는 최근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가 증가하고 질병관리청이 인플루엔자 '주의'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마스크 착용 캠페인에 나섰다.

올해 인플루엔자 주의보는 두 달 빠른 시기인 지난 10월 17일 발령됐으며, 전국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은 46주차(11월 9~15일) 외래환자 1000명당 66.3명으로 전주보다 31% 늘었다.

보건소는 이번 캠페인의 공식 슬로건을 '독감 예방에는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필수'로 정하고 시민들의 예방 수칙 실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강용근 나주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는 전파력이 강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백신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실천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민 기자 pose007@

인사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이철호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본부장 △광주본부장 임철현 △전남본부장 장재영